



창원시자연연합회가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도 25호선 노선변경을 요구했다.

부산 경남일대의 사할 수행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 가운데 스님과 불자들이 환경수호를 위해 적극 나섰다.

부산 해원정사, 장원길상사, 밀양 표충사가 사할 인근에 방치된 재건축 아파트, 대우전 위를 지나는 국도, 사할 입구에 허가된 토사채취장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 해원정사 아파트 재건축...나한전·삼성각 붕괴 위험
길상사 대우전 위 국도 25호선 통과...사찰준립 위기
표충사 1.2km 떨어진 인근에 토사채취장 허가 내줘

곳곳 무분별 개발...수행환경 위협

연화회 회장 원정 스님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통해 "노선 변경을 하면서 길상사에 아무런 협의나 통보가 없었고 창원대의 반발로 불거진 변경 노선은 약 1천여 원의 예산이 더 드는 데다 자연환경, 수행환경을 모두 파괴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밀양 표충사도 사할에서 1.2km 떨어진 인근에 토사채취장 허가가 나와 밀양시 단장면 주민들과 함께 환경 수호에 나섰다.

이날 참석한 3백 여명의 주민들은 2시간에 걸쳐 토취장 허가를 결사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밀양시장을 면담했다.

11월 22일 토요일 밤, 남도 땅 끝, 해남 대흥사 유스호텔에 하나 둘 모여든 온라인 동호회 '문화유적 답사회'



미행사 부도를 조사하고 있는 답사팀.

"서산대사 부도 여기 있네"

만 봤던 문화재가 눈에 선해사.

온라인 '문화유적답사회' 해남 대흥사 성지순례

23일 첫 답사지인 대흥사

사로 향하는 길, 초겨울 새벽녘 찬바람을 맞으며 대흥사에 도착한 답사팀은 큰 스님의 위엄을 담은 20여기의 부도를 가운데서 서산대사 부도를 찾았다.

"이게 그 유명한 대흥사 돌사자 머리 아이가." 하며 사진을 찍는 답사팀의 주인공 김환대(28) 씨, 동국대에서 고고미술사학을 전공하고 경주문화유산 답사회 등 답사팀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자신이 본 모든 유

는. "어, 저기 석탑 해체해 놨네." (곽효동·26, 회사원) 대흥사 경내 한 구석에 해체한 석탑을 본 답사팀은 석탑 해체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1년 4월 만들어진 '문화유산 답사회'는 지금까지 80여 곳에서 전국답사를 진행했다. 수백 년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문화유산 사랑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운다는 이들, 답사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부딪는 눈'이 되어 선인들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고 있다.

해남=오유진 기자

인도·아프가니스탄서 자원봉사 대학생 모집

정토회(대표 유수)에서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봉사활동을 할 대학생들을 모집한다.

2003년 12월 28일부터 2004년 2월 3일까지 '인도·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는 선제기행'은 국제 구호활동 프로그램 참여와 간다라 미술·유적 방문, 성지순례 등으로 이뤄진다.

남동우 기자

불교TV, 사육매입·등기

노조 "이사회 결정에 위배"

불교TV가 사육매입을 위해 11월 14일 서울 서교동 (구)다솜방송 건물을 매입, 등기이전까지 끝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성희 기자

불교생태학 국제세미나 개최

동국대 BK21, 내년부터 3년동안

현대물질문명의 폐해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불교생태학 연구가 본격화된다.

동국대 BK 21 불교문화사상교육 연구단(단장 조용길, 이하 연구단)은 2004년부터 3년간 불교생태학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월 24일 밝혔다.

2004년 1월 스리랑카 페라메니아 대학교에서 개최될 첫 번째 세미나는 '불교 속의 생태학적 측면들'로 정해졌다.

유진 기자

개최되는 두 번째 세미나는 불교의 생태문화적 가르침을 통해 현대물질문명을 비판할 예정이다.

두 차례 불교생태학 연구는 '학제적 연구로서의 불교생태학'이란 주제로 2006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세계종교연구소에서 열릴 세 번째 세미나로 마무리된다.

이밖에 연구단은 스리랑카 페라메니아 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고, 그동안 연구성과를 엮은 <한국과 인도 불자사상과 문화(Buddhist Thought and Culture in India and Korea)>를 출간했다.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서울 운불련 나눔콜택시 1588-5532



전국여성불자 108인에 선정된 여성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박재완 기자

전국여성불자 108인 선정 불교여성개발원, 기념식

교계 안팎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은 11월 26일 서울 봉은사본사에서 창립 3주년 기념 및 여성불자 108인 선정 기념 법회를 열었다.

강신재 기자

취재거부의 속사정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강제추출을 11월 16일로 못 박은 지 9일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회와 성당으로 피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처음으로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사찰을 취재하기 위해 부천으로 달려갔다.

이 사람 이모 사무국장은 "이 문제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사찰로서는 앞으로 있을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며 취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목석소리 김철우 (취재1부 기자) 기사 내용: 교의 사회적 위상이 낮아져 어떻게 공권력을 상대하겠느냐고 덧붙혔다. 최근 개신교 등 타종교 단체들이 정부의 잘못된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 이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과 비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2004년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학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개호복지사과, 불교학과, 불교미술(문화재)과, 포교사과정.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한의과대학) 2004년 본과생(학사) 2 학교 소개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4 문의처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연령 관계 없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 511-1080